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 전경.

수입차 시험무대 된 한국 시장

BMW 드라이빙센터, 메르세데스 미, 커넥트 투 등 獨·日, 브랜드 홍보·주행 체험 공간 등 잇따라 개장

국내 시장에서 수입차의 신장세가 급속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차 업체들이 잇따라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등 한국 시장이 수입차 업체의 시험무대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주요 수입차 업체들은 고객과의 소통을 표방하며 국내 시장에서 세계 최초, 아시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새로운 공간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업체는 수입차 업계 1, 2위를 다투는 BMW와 메르세데스-벤츠다. BMW는 지난 8월 인천 영종도에 브랜드 홍보와 주행 체험을 겸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BMW 드라이빙센터 문을 열고 이런 흐름의 신호탄을 쏘았다. BMW 드라이빙센터는 BMW가 독일과 미국에 이어 3번째로 세운 드라이빙센터이자 가족 단위로 전시·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브랜드·드라이빙 복합문화공간으로 세계 최초다. 이곳은 개장 1개월여 만에 1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모으며 고객 소통 공간으로

안착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세로수길에 젊은층을 겨냥한 자사의 소형차 체험 공간 '메르세데스 미(Mercedes me)'를 오픈했다. 옛세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공간은 누구나 부담없이 들러 벤츠 A-클래스부터 GLA-클래스에 이르기까지 벤츠의 소형차를 둘러보고 직접 시승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난 3월 제네바모터쇼에서 새로운 글로벌 서비스 브랜드 '메르세데스 미'를 발표한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 6월 독일 함부르크에 상설 브랜드 체험관 '메르세데스 미'의 문을 연 데 이어 아시아에서는 한국에서 처음 선보이는 것이다.

독일 업체에 뒤질세라 일본 업체인 토요타도 지난 24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엔터테인먼트 동 1층에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동차, 자동차와 사회를 연결하는 것을 기치로 내건 신개념의 복합 브랜드 체험관 '커넥트 투(CONNECT TO)'

의 문을 열었다. 토요타가 시판하는 차량을 전시하거나, 고객에게 시승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디자인이 묻어나는 공간에서 좋은 재료로 만든 차와 디지털을 즐기고, 미래지향적인 컨셉트카를 감상하며 누구나 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으로 꾸며졌다. 토요타가 차량 전시 공간이 아닌 소통과 만남을 주제로 한 복합 브랜드 체험 공간을 선보이는 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다.

이처럼 수입차 업체가 한국 시장에 새로운 개념의 브랜드 체험 공간을 오픈하는 것은 과거 70%를 가뿐히 넘던 현대·기아자동차의 내수 점유율이 최근 들어 꺾일 조짐을 보이자 더 공격적이고, 더 감성적으로 한국 소비자들을 파고들어 시장을 넓혀겠다는 전략이 숨어 있다는 분석이다.

윤대성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전무는 "유럽의 경우 노후에 연금을 비교적 넉넉히 받기 때문에 값싼 차의 구매자들이 주로 노년층인데 비해 국내 수입차 시장은 30대가 걸인하는 보기 드문 시장"이라며 "마케팅 등에 대한 반응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빨라 수입차 업체들로서는 시험 무대로 삼기 좋다"고 말했다.

가솔린 수입 차량 부활

지난달 수입 휘발유차 비중 30% 넘어 BMW 등 독일 3사 판매량 급증 원인



BMW 528i xdrive

'수입차=디젤차'라는 공식이 굳어질 정도로 승승장구하는 디젤(경유) 차량에 밀려 기를 펴지 못하던 가솔린(휘발유) 차량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점유율 30% 선을 회복했다.

최근 수입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새로 등록된 수입차가 1만7027대에 달하는 가운데 연료별로는 디젤이 1만 1174대로 65.6%, 가솔린이 5105대로 30.0%, 하이브리드가 743대로 4.4%의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수입차 월간 등록 대수 가운데 가솔린 차의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가솔린차는 1만2405대가 등록된 지난해 12월의 경우 33.8%의 비중을 나타냈으나 올 들어 경우차의 공세에 밀려 30%를 줄곤 밀려왔다. 지난 8월에는 경유차의 비중이 69.5%로 차츰은 가운데 가솔린차는 26.8%의 사상 최저의 점유율을 보인 바 있다.

수입차 시장에서 디젤차는 2009년 월간 평균 판매량 대수 1000대를 처음 넘어선 뒤 판매가 본격화했고, 2012년 3월 사상 처음으로 가솔린차 4974대, 디젤차 5249대로 판매가 역전된 이래 점유율을 꾸준히 키우며 현재는 가솔린차에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9월 들어 가솔린차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폴크스바겐의 파사트 1.8 TSI(판매량 300대)와 CC 2.0 TSI(79대), BMW의 528 xdrive(341대), 벤츠 E300 4매틱(317대) 등 평소 디젤차 비중이 높은 독일 3사의 가솔린 차량 판매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폴크스바겐의 경우 지난 8월 출시된 파사트 1.8 TSI가 지난달 3000대 팔리며 9월 전체 판매 차량 가운데 디젤차의 비중이 17%로 경총 뛰어올랐다.

티구안과 폴트 등 TDI 엔진이 장착된 디젤 차량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폴크스바겐

은 올해 9월까지 누적 판매량 2만3326대 가운데 가솔린 차량의 비중이 5%에 불과할 정도로 디젤차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다.

BMW 528 xdrive의 경우 8월 111대에서 지난달에는 341대로 판매량이 200% 이상 수직상승했고, 벤츠 E300 4매틱 역시 8월 191대에서 지난달에는 317대로 판매 성장률이 66%에 달했다. 모처럼 휘발유 차량이 점유율 30% 선을 회복하자 시장에서는 경유차 솔리 현상이 다소 잦아드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본계 수입차업체의 한 관계자는 "연비가 좋고, 차고 나가는 힘이 강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질과 잘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디젤차가 최근 몇 년 동안 수입차의 대세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차량의 정숙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다시 휘발유차로 갈아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긴급출동 서비스 스마트폰으로 접수합니다

기아차, 시스템 개발 기아자동차가 지난 26일부터 주행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모든 고객센터 상담원이 통화 중일 때 긴급출동을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링크된 문자를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발송해 고객이 기다리지 않고 사고접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아차의 서비스 멤버십 'Q 멤버십'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기존 긴급출동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고객센터(☎080-200-2000)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을 통해 접수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신청이 집중되는 특정 시간대에는 사고를 접수하거나 상담을 받기가 어려웠다. 기아차는 또 고객이 긴급출동 접수 후 출동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3단계(접수처리→출동→완료)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자동차, 이것이 궁금해요

에어컨·히터 켤 때 나는 냄새 없애려면 운행중지 전 송풍

Q)에어컨이나 히터 켤 때 나는 냄새, 어떻게 없애죠?
A)운행 중지 5분 전에 미리 에어컨(히터)을 끄고, 송풍으로 바꾸세요. 또 에어컨 필터는 1년에 2번, 계절 주기를 보고 에어컨과 히터 사용 전에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전문가 의견"에어컨(히터) 작동 시 나는 냄새는 에어컨 라디에이터 속에서 습기와 먼지가 만나 발생하는 곰팡이가 원인입니다. 따라서 에어컨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행 중지 전에 에어컨(히터)을 미리 끄고 송풍을 하면 자연건조가 돼 곰팡이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터는 에어컨이나 히터를 사용하게 되는 여름 또는 겨울이 되기 전 2차례 교환하면 쾌적한 운전이 가능합니다."
<기아차 광주서비스센터 제공>

신축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

룸 12개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옥탑

월수익 500만
매가 6억 7천
(보 4천, 용 1억 5천)

원룸전문취급
원룸물건 다양있음
(금액 4~12억)

062)512-8080
010-6670-26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건물

1.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옆
7층 건물사우나
대지 96평/건평 570평
월수익 98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2,000만 수익 발생(1년2억 4천)
매가 13억(보 2억, 용 5억)

2. 북구 우산동 4층 상가주택 건물
대지 120평/건평 500평
월 수익 900만, 매가 10억

3. 북구 오룡동 8층 건물
1층 상가, 삼성전자 앞
보 2억, 용 15억 오피스텔 58개
월 수익 3,000만, 매가 35억

4. 북구 상가건물 3층
토지 160평/건물 200평
월 수익 1,200만, 매가 21억

5. 수완지구 상가건물 4층
(우미아파트 밀집)
월 수익 900만, 매가 17억

(주)대신 010-6670-9800, 062-952-5584

2층상가 건물 매매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신중
영산중교고
대덕아파트 앞

건물 135평
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200만
용 1억
매가 3억 2천
할인→ 2억 8천

목포시 옹해동 전원주택 매매

목포시 옹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옹해동교회
이루시장 1분
금호타운 아파트
바로 앞

노후주택 적합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현 무화과 식재 됨
과수원

매가 3억 2천
할인→ 2억 8천

062)512-8080, 010-6732-9700

오피스텔 매매 (수익상가)

1.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48평
올 리모델링 완비
천변쪽 방향 전망 좋음.
즉시 입주 가, 임대 가
보 1천, 월 70만 (용 5천)
48평 매가 1억 5천
할인→ 1억 1천

2. 서구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15평
내부시설 완비
임대 완료
보 300만, 월 33만
(용 1,300만)
15평 매가 5,000만

3. 쌍촌동 원룸
운천역 1분
매가 3500만

4.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정연 오피스텔 3층 32평
매가 1억 1천만
(보 1천, 월 70만, 용 5천만)

062)527-7600

(주)대신경매

경매의 모든것을 가족처럼 편안하게 컨설팅 합니다.
건축분야·신축·실제·리모델링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군/리/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780,2㎡,건1992,57㎡) 감평가 24억7천 최저가 13억8천 (유찰1회)투자적합
· 광주 동구 동평동 (토지838㎡,건2190㎡) 감평가 17억 최저가 17억 신건
· 광주 서구 화평동 (토지171㎡,건501㎡) 감평가 2억7천최저가 2억7천 신건
· 광주 서구 화평동 (토지372㎡,건1255㎡) 감평가 10억 최저가 7억 유찰1회
· 광주 서구 치평동 (토지1599㎡,건17380㎡) 감평가 200억 최저가 200억 신건

군/리/주/택
· 광주 광산구 소천동 (토지400㎡,건294㎡) 감평가 3억7천 / 최저가 3억7천 신건
· 광주 동구 학동 (토지204㎡,건541㎡) 감평가 4억 / 최저가 4억 신건
· 광주 서구 금호동 (토지197㎡,건362㎡) 감평가 3억8천 / 최저가 2억6천 신건

숙/박/시/설
· 광주 광산구 쌍암동 (토지1182㎡,건22289㎡) 감평가 32억 / 최저가 10억8천 유찰2회
· 광주 서구 광천동 (토지 235㎡, 건 980㎡) 감평가 7억 / 최저가 4억 유찰2회

오/피/시/텔
· 광주 동구 동구 (토지6,6㎡,건24㎡) 감평가 2천4백 / 최저가 1천9백 유찰1회
· 광주 서구 치평동 (토지 4,9㎡, 건31㎡) 감평가 6천 / 최저가 3천 유찰2회
· 광주 서구 치평동 (토지 42㎡, 건190㎡) 감평가 3억 / 최저가 8천 유찰6회

공 장
· 광주 광산구 옥동 (토지16315㎡) 감평가 150억 / 최저가 150억 신건
· 광주 광산구 월전동 (토지4162㎡, 건3582㎡) 감평가 300억 / 최저가 20억 유찰2회

대 지
· 광주 광산구 쌍암동 (토지3974㎡) 감평가 44억 / 최저가 31억 투자적합
· 광주 광산구 용동 (토지787㎡) 감평가 1억3천 / 최저가 7천3백 (유찰1회)투자적합

경매 직원구함, 공동 사무실 쓰실분

경매가족처럼 가족처럼 같이하실분/사무실 공동사용/공동투자가 가능합니다.
(경매, 부동산 컨설팅, 건설, 시흥, 설계, 부동산관련 전체를 취급합니다.)

부동산 직원구함 남·녀 실장(여성 자격증 소지자 급여제 가능), 경리구함

(주)대신 062)952-5584, 010-6670-9800